

옛 전방·일신방직 개발 국제공모 덴마크 '모두를 위한 도시' 선정

보행자 중심 '15분 생활권' 제시 사업계획 반영...7월까지 협상

광주 첫 복합쇼핑몰 후보지 중 한 곳인 북구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 국제설계

공모에 덴마크 건축설계회사 '어반 에이전시'의 작품이 선정됐다. 광주시는 19일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개발을 위한 국제지명초청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어반 에이전시의 '모두를 위한 도시(City For All·조감도)'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제해성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국내 권위있는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지난 17일 국제지명 설계공모에 출품한 국내외 8개 작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같이 확정했다. 당선작 '모두를 위한 도시(City For All)'는 환경적·경제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도보나 자전거로 15분 이내



의 참가보상비가 지급된다. 광주시는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결과를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개발 사업계획에 반영해 오는 7월까지 부지개발 사업자인 ㈜휴먼스홀딩스피에프비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제지명초청 설계공모 당선작을 포함한 출품작(총 8건)은 공모전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일부터 24일까지 시청 1층 시민실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김종호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세계적인 건축가로부터 다양한 도시설계안이 접수됐다"며 "미래지향적 도시경관 창출과 창의적이고 유연한 도시공간계획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7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공식 출범

탄소중립정책 컨트롤타워 삼성전자·기아차 등 협력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광주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광주시는 지난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맡는다. 시는 자원순환·저탄소 녹색성장·도시재생·기후위기적응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41명을 민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총 5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동위원장에는 당연직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함께 최도성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이 맡는다. 부위원장은 황태연 조선대학교 교수가 선출됐다. 위원들은 ▲환경순환분과 ▲흡수원분과 ▲도시건축분과 ▲녹색교통분과 ▲에너지·산업분과 ▲기후적응분과 ▲실질분과 등 7개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출범식과 함께 열린 제1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광주시 2045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과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규정 제정 및 분과위원회 위임사무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시는 이날 지역 대표기업인 삼성전자, 기

아(주), 광주은행과 '광주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RE100 이행 ▲탄소포집기술 적용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을, 기아(주)는 ▲기후변화대응 신기술 개발 ▲친환경차 전환 ▲협력업체 온실가스 감축 지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등에 나선다. 광주은행은 온실가스 감축 시민실천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삼성전자와 기아(주)는 기후변화 취약계층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인덕션과 생수, 인덕션용 조리용품을 지원키로 했으며, 광주은행은 광주시가 추진 중인 '광주온도 낮추기 우수아파트 조성사업'에 대한 홍보와 선정아파트에 우대금리 0.3%를 지원한다.

/길용현 기자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서둘러라"

시도의장협, 촉구 건의안 채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광주시의회 주도로 부산·대구·대전·울산시의회가 공동으로 제안했다.

건의안에는 광주 등 전국 5개 지방광역시에서 추진중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심융합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광역시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

2밸리' 모델을 적용해 산업·주거·문화·도시편의시설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존 산업단지처럼 도시 외곽에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이 아닌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접근성과 정주여건이 양호한 도심에 집중 투자해 '일터-숙터-배움터-놀이터'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광주의 경우 2020년 말 사무지구 일원(85만㎡)이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 창업·성장·벤처·소통·교류의 공간과 혁신기업·글로벌 공간 조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사업의 근거가 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2021년 5월 발의된 후 2년째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길용현 기자

김승남, 도·농 상생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9일 "도시 농축협과 농촌 농축협간 격차 해소와 도농 상생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 농축협이 신용사업 수익 일부를 도농 상생 사업비로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농산물 판매 지원 등 농촌 농축협 경제사업에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농 상생 지원자금 조성 근거를 신설한다.

김 의원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도시 농축협과 농촌 농축협의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시 농축협은 농촌보다 자기자본 4배, 손익 4.4

배, 조합원 배당 3.3배, 교육지원 사업비는 2.7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최근 쌀이나 한우 등 농축산물 가격 폭락과 조서 및 농기자가 가격 상승으로 대부분의 농촌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릴 상생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은 기자



광주광역시 공고 제 2023-389호
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3-35호

2023년 광주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공고

우리지역 제조업체 현장의 공정개선과 품질 향상을 위한 광주형 스마트공장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2월 28일

광주광역시장 광주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광주 제조기업의 공정개선과 품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및 장비/솔루션 도입 지원
- 지원예산 : 700백만원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본사 또는 공장 보유 必)
-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우대가점) ① 창업 후 7년 미만 기업, ②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기업, ③ Pre 및 명품강소기업 (전문가 컨설팅 의무지움)

- 지원조건 : 스마트공장 도입·구축목표 수준 'Level 1-2' 기업
- * 중복신청 불가 : 대중소 상생형(기초),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탄소중립형스마트공장
- * 스마트공장 신규도입(구축)을 지원, 기 구축기업(정부일반형-기초) 지원 불가

○ 지원내용

구분	내용	비고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5천만원 - 총사업비의 50% 이내지원, 50% 및 부가세 기업부담 ▶ 사업기간 : 총 12개월(구축 6개월, AS 6개월) - 구축기간 내 솔루션(SW/HW) 개발·연동을 구축 완료하여야 하며, 구축기간은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세부 지원내용 : 제품설계,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솔루션, 장비스마트 제조 요소기술을 적용한 장비구축 ▶ 지원방법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스마트 공장 솔루션 구축 수행(도입기업 직접지원) = 요건검토 적합기업 대상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공급기업 pool 활용	14개사 내외
전문 컨설팅 (코디네이터)	▶ 구축과정 장애 해결 지원, 공정 개선 및 LOSS 제거 등 적정 스마트공장 구현을 위한 전문 컨설팅(코디네이터) 지원 ▶ 요건검토 적합기업 대상 '광주 전문가 pool' 활용 매칭 후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무료지원
전담인력 교육 지원 (필수)	▶ 스마트공장 개요 및 추진전략, 스마트수준에 따른 지원전략 등 TP 주관 교육프로그램 지원(필수) ▶ 중진공 호남연수원 연계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이수(-CEO·총괄책임자 8시간, 실무자 16시간)	무료지원

* '23년 광주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운영절차 및 세부관리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관리지침 및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추진매뉴얼을 준용하여 지원

2. 추진절차

① 사업공고 → ② 신청접수(요건검토) → ③ 기술성평가 및 현장확인(원가계산) → ④ 선정심의
광주TP→광주TP → 도입기업(광주TP) → 광주TP → 선정심의위원회

⑤ 최종평가 ← ⑦ 사업수행&과제관리 ← ⑥ 지원금 지급 ← ④ 협약체결
광주TP→도입&공급 ← 광주TP→도입&공급 ← TP→도입 ← TP→도입→공급

* 요건검토 적합기업 대상 기술성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3. 선정절차 및 평가항목

○ 선정절차 : ① 기술성평가 → ② 현장확인 → ③ 선정심의(선정)

구분	기술성평가	현장확인	선정심의
선정절차 및 방법	• 사업계획서 제출된 과제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파악하고 대면(발표) 방식으로 지원 적합성을 평가 • 기술성평가 점수(80%) 및 밀지리평가 점수(20%) 반영 점수에 선정 우대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 산정	•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해 사업계획서 일치 여부를 현장확인을 통해 적/부 판정 • 사업계획서 내용 및 기타 여부 확인	• 최종점수 및 현장확인 특이사항 의견 등을 상정한 안전으로 선정 심의·의결 • 선정·후보 탈락 여부 통보

수행주체 : 광주테크노파크 선정심의위원회
* 현장확인에서 부적합 1개 이상 및 부정사태 발견 시 선정심에서 탈락과제에 안전 상정

4.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및 방법 :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 정보마당 - 지원사업 공고(971번) 참조

접수기간	접수처
공고일~2023년 3월 31일(금) 18시 * 마감시간 준수, 시간 외 접수 분 불인정	광주테크노파크 사업담당자 이메일 제출 * 김규린 선임(gyulin22@gjtp.or.kr)